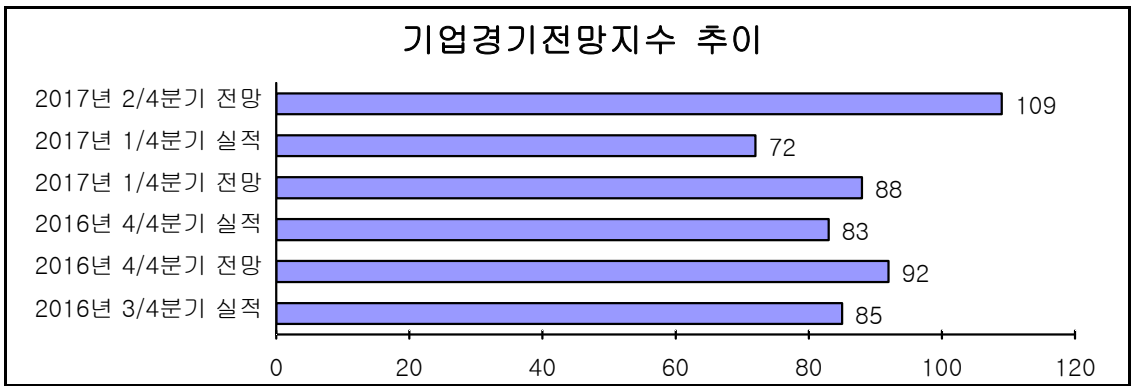
영주상공회의소 調 査 結 果	2017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회원조사과 054)632-8830	회원사 30개 표본업체 조사 결과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송화선)는 최근 회원사(제조업체) 30개를 표본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2017년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는 지난분기보다 '21' 포인트 상승한 '109'을 기록했다.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 '11'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 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분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2016년 3/4분기 실적	2016년 4/4분기 전망	2016년 4/4분기 실적	2017년 1/4분기 전망	2017년 1/4분기 실적	2017년 2/4분기 전망
체감경기	91	78	63	80	48	106
매출액	96	83	76	80	58	106
당기순이익	83	68				
설비투자	100	96	116	110	106	120
자금사정	73	78	76	83	75	103
구인환경	73	77				
무역환경	58	75				
규제환경	67	93				
경쟁강도	120	138				
시장변화속도	107	127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체감경기 106, 매출액은 106, 설비투자 120, 자금사정 103 으로 대체적으로 기업여건은 어려워졌으나, 경기는 2017년 1/4분기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묻는 설문에 대해 응답업체들은 환율변동 불확실성을 손꼽았다. '원유 등 원자재가격 변동성'(23.7%), '중국 한한령 및 경기둔화'(22%), '미국 트럼프 리스크'(15.3%), '북한리스크'(6.8%) 순이었다.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설문에도 절반(66.7%)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한 우려사항은 '달러환율 변동 가능성'(31.7%), '반덤핑 관세 등의 수입규제'(14.6%), '비관세장벽'(12.2%), '미국금리 인상 가능성'(4.9%), '국경세'(2.4%) 순이었다.

응답업체들은 대내 불확실성 요인으로 '정치·사회 불확실성'(32.8%), '정부 콘트롤타워 부재'(29.5%), '가계부채 문제'(11.5%), '금리변동 가능성'(9.8%), '국회의 규제입법'(6.6%) 순으로 답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방안에 대해서는 '혁신기술 개발'(28.6%), '사업다각화'(25.7%), '해외신시장 개척'(25.7%), '환변동 보험 등의 대외리스크 관리' 11.4%), '기존사업 구조조정'(5.7%) 순으로 답했다.

영주상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주요국 경제가 동반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국내경기 회복의 기회로 활용하는데 제약요인과 불안요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일을 벌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통상압박과 규제입법 등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분석했다.

○조사기간 : 2016. 12. 2 ~ 12. 15 (휴일제외 10일 동안)
○조사대상 : 영주지역 조사대상 표본업체
○조사방법 : 전화, FAX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 미만일 때는 반대임
○BSI지수=[(호전예상업체수-악화예상업체수)÷전체응답업체수]×100 + 100
○BSI전망치는 다음분기에 대한 전망치임